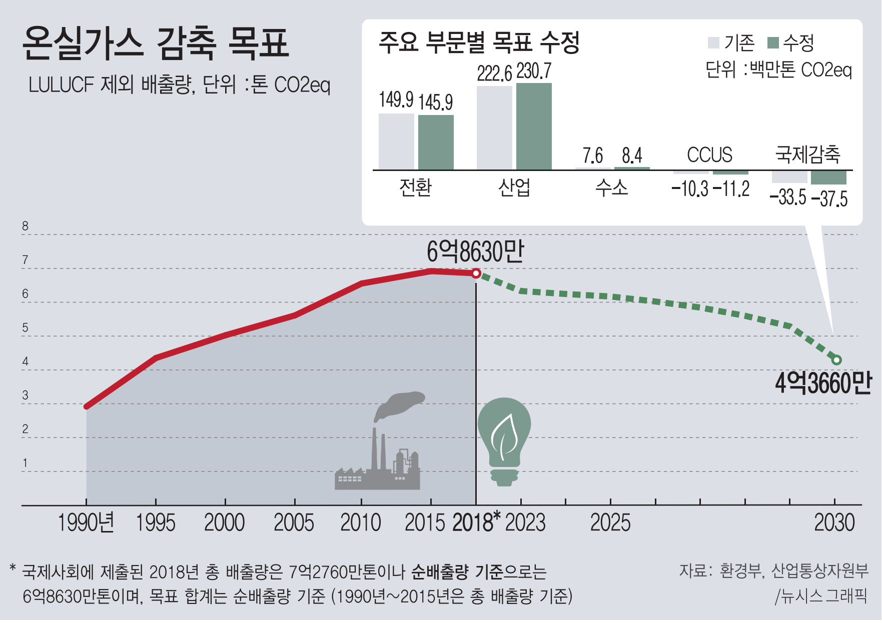
산업부문 NDC 하향 조정… 2027년까지 CCUS 90兆 투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文 정부 2030년 총 NDC 동일
원전발전 비중 23.9%→32.4%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 지적도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11.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축 목표치였던 14.5%보다 축소됐다. 그런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배출량 4억3660만t) 감축한다는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결국,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 분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몫이 됐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산업 부문의 경우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배출량 2억3070만t) 감축으로 설정됐다.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800만t 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 2021년 10월 목표로 했던 14.5%(배출량 2억2260만t) 감축 안보다 축소됐다.

이 밖에 수송(37.8%)과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나머지 건물(32.8%), 흡수원(-2670만t)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수준과 같다.

특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목표는 기존 정부 안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감축 목표치를 축소하면서도 7년 뒤 목표치는 그대로 둬 '조삼모사'이자 차기 정부에 부담만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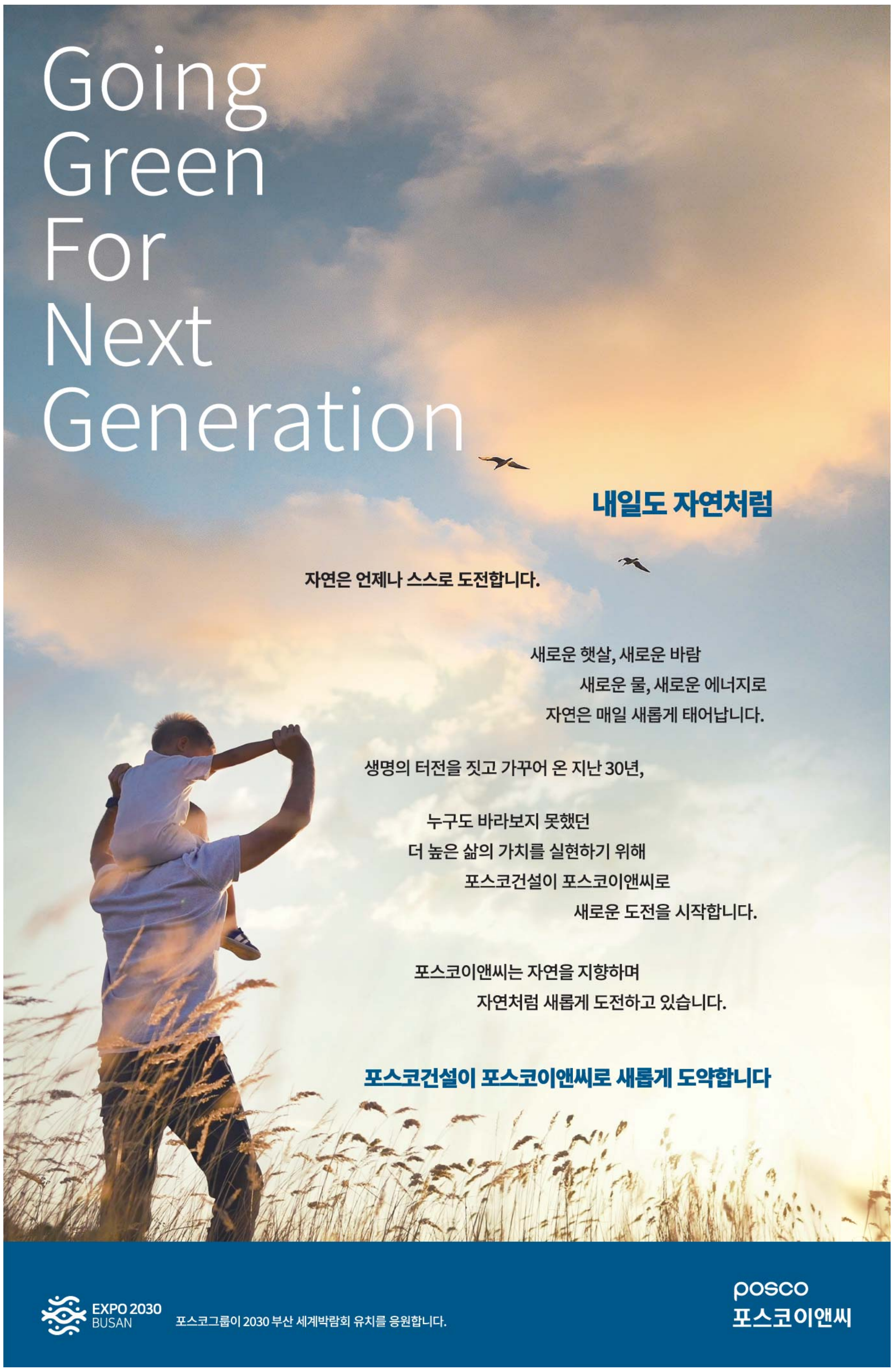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4%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에서 21.6% 이상으로 줄였다.

또,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예산 총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편성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도 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이번 정부 안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시민단체·청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서비스·공산품 가격 상승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0.1% ↑

한은, 다음달 물가 둔화폭 축소 전망
전력·가스·수도·폐기물 0.3% 하락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한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도시가스와 축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서비스와 공산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달간의 시차를 반영해 3월 소비자물가의 둔화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자물가지수 중 서비스는 0.3% 상승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는 0.6%, 부동산서비스는 0.5% 오른 영향이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0%)이 내렸으나 화학제품(0.6%)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반면 지난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3% 하락했다. 농림수산품도 축산물(-3.2%)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내렸다.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24.26으로 원재료(1.3%), 중간재(0.7%), 최종재(0.5%)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로,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19.49로 공산품(0.6%)과 서비스(0.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다이소 명동역점 점포 '12층 규모' 확장

〉〉 1면 '활기 되찾은 명동'서 계속

아성다이소도 지난 1일 1년간 휴점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다이소 명동역점을 재개점하면서 기존 5층 규모였던 점포를 12층 규모로 키웠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점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매장이다. 초대형 매장으로 재개점하면서 국내외로 관심을 끌어 휴일 오후에는 계산을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할 만큼 붐비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방문객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명동 상권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명동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FIFA 1904, 뉴발란스, 나이키, 아이더, 슈마커플러스, ABC마트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K-콘텐츠 열풍이 불었던 만큼 명동을 찾는 관광객에 의한 수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